

성시신문 Magazine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기획특집

감동을 주는 신앙인
십자가의 화평
성경의 가축 양과 염소의 의미

특집

성시화와 유학생 사역
귀신을 부리는 유럽의 문화예술계

문화에 빠지다

맛기행 김치 없이는 나는 못살아

영화이야기 테스터먼트-모세 이야기

영화감상 구원

건강 담이 결렸어요

책속의 책 민경구의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

전지적 셀장 시점

하나님 나라 복음과 제자도

255

January 2025



창간1998
춘천성시화운동본부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Contents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기획특집

- 03 감동을 주는 신앙인 심정례 명예권사 | 이연희 목사
- 05 십자가의 화평 | 이영규 목사
- 08 성경의 가축 양과 염소의 의미 | 박익수 집사

특집

- 10 성시화와 유학생 사역 | 박상배 선교사
- 12 귀신을 부리는 유럽의 문화예술계 | 이관형 권사

문화 | 영화 | 책 FOOD MOVIE BOOK

- 15 맛 기행 김치 없이는 나는 못살아 | 이관형 권사
- 17 영화이야기 테스터먼트-모세 이야기 | 김춘배 화백
- 19 명화감상 구원 | 김복동
- 20 건강 담이 결렸어요 | 이시형 원장
- 21 책 소개 책속의 책 | 박도준 목사



춘천성시화운동후원하기

신협 131-005-937566 (춘천성시화운동)

춘천성시화운동본부 QR코드 후원참여에 들어가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참여

감동을 주는 신앙인 | 심정례 명예권사(춘천중앙성결교회) 찬양으로 하나되는 음악 가정 이야기(1)

이연희 목사
(아미교회, 성시신문편집위원)

‘노래하는 곳에 행복이 있네~’라는 말이 있다. 사람에게 노래가 있다는 것, 음악이 있다는 것은 삶의 풍요와 희락에 소중한 수단이다. 가요, 가곡, 동요, 팝송, 민요 등 각 장르가 다양하게 우리네 삶을 즐겁게 하므로 나그네길을 즐겁게 걸어갈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노래는 더욱 귀한 신앙의 표현이 되기도 하다. 성도가 부르는 찬양, 찬송은 특별한 노래다. 창조주인 하나님을 높이고, 구원자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표현이다. 찬양하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누구나 바라는 소망일 것이다. 성악을 전공하고,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심정례 권사님의 삶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1. 아펜젤러 선교사의 도움을 받은 선친의 신앙과 넉넉한 가정환경

심 권사님은 이북이 고향이셨던 부모님은 6.25 전쟁으로 부산으로 피난 오셨고, 피난 시절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구호 물품을 지원받았을 뿐 아니라 그 시절 만난 선교사님들과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다.

부산의 피난 시절을 지나, 서울로 올라와 충무로에 거처를 삼게 되면서, 부모님은 사업을 통해 경제적 고난 없는 가정을 이루셨다. 덕분에 심 권사님은 1956년부터 비행기도 타보고, 지프차를 타

고 다닐 정도의 풍요로운 가정에서 별다른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이 성장하실 수 있었다. 부친이 평양에서 지내실 때 일본 상지대를 졸업하셨고, 전쟁으로 피난 오신 후에는 세무서에 근무하셨다고 한다.

당시 우리나라의 어려운 환경을 고려할 때,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라 할 수 있는 가정환경에서 여유로운 삶을 누리며 시대적 상황과 다른 귀한 딸로 성장했던 것이다.

심 권사님은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자연스레 닮아갔고, 매 주일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며 지내온 교회 중심의 생활은 굴곡 없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부모님과 함께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는 낯설거나, 거리감이나, 불편함 없이 삶의 일부가 되어 70을 바라보는 세월 동안 삶의 전부가 되었다.

2. 찬양과 기도의 여인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존재하기까지는 고교 시절의 도전과 모험이 있었다. 아버지는 ‘여자는 이래야 한다’ 하시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지도하셨다. 그러나 심 권사님은 고3 시절부터 교수이시던 고모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의 승낙 없이 개인 레슨을 받으며 성악 공부를 하게 되고, 음악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타고난 재능을 계발하여 진학한 뒤에는 전공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을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 그러나 음악(성악)을 전공하고 졸업하니 가능한 한 빨리 결혼을 하도록 재촉하셨다고 한다. 그런 아버지의 권유가 싫었기에, 도피처로 신문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고등공민학교 음악교사로 교편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공민학교 음악교사로 교편을 잡는 동안 어려운 학생들을 통하여 삶의 고난과 애환을 접하게 되었고, 불쌍한 학생들을 보면서 자신이 알지 못한 어려운 세계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눈이 열리고, 세상을 알게 되었다. 강원도로 임용고사를 본 후에는 춘천으로 발령이 나서 춘천에서 교편생활을 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연애는 자유지만, 결혼은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엄하게 가르치셨고, 데이트를 하거나, 남자 친구를 만나는 일에 깊이 관여하시고 신경을 쓰셨다. 그런 아버지의 눈을 피해 자연스레 공부를 통한 만남의 데이트로 지금의 남편 김인수 장로님을 남편으로 만나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신앙의 가문을 이어오게 되었다.

아버지 장로님께서서는 102세로 장수하셨고 자녀들의 유학자금도 끝까지 후원해 주시는 경제전문가로서 물질 문제, 금전 관계를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이셨다. 남편과 두 딸이 첼로와 피아노를 전공하여 성악을 전공하신 권사님과 온 가족이 교회에 봉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으로 든든히 세우셨다.

세계 기도하는 여성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새벽기도회 반주로 봉사하시며 찬양과 기도의 이중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계시는 심 권사님의 이야기는 다음 호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다.

십자가의 화평

이영규 목사

(신북성결교회, 성시신문편집위원)

“박상은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미션원장이 5일 오후 베트남 의료선교활동 중 세상을 떠났다. 향년 65세.”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던 분의 죽음(2023년 11월 5일)을 우연히 알고 나는 슬퍼했었다, 복음이신 예수님의 선교라는 단순한 공통점으로 인해. 그리고 1년도 안 돼 나의 선교 동역자 황석호 피택장로가 2024년 10월 10일 돌아가셨다. 향년 67세. 두 달 정도가 지난 지금, 아직도 슬퍼하는 마음을 애써 그치게 하고 그가 달려간 길을 밟아 본다.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산을 넘기 위해서(사52:7).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전 사무총장이셨던 조영춘 목사님으로부터 누군가가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 누군가가 황석호 안수집사님이셨다. 첫 만남 장소는 모 추어탕집이었다. 2017년도의 일이다. 그분이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는 전기를 다루는 자, 나는 업으로는 아니지만 건축하는 자였기에(행18:3), 하는 일이 비슷하였고, 그런 일로 더 많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돕는 선한 일을 사모함이 특심하였기 때문이었다. 만나는 그날 우리는 의기투합하여 도원결의하듯 하였다.

첫 출항지는 2018년 상하이, 쿤밍을 거쳐 인도의 캘커타를 지나 비하르주였다. 인도 선교에 뜻을 모은 목사님들이 모인 어떤 모임의 협조 덕분이었다. 사실은 그분들의 사명이었기에 우리가 협력한 것이다. 감사할 따름이다. 충전드릴 배터리 때문에 가는 길에만 8번의 검열을 받아 먼 거리만큼 마음이 지쳤지만, 선교사님들의 사역 일부에 동참한다는 마음가짐이 우리를 견디게 했다. 우린 그때 자기 드러낸인 사람들에 속한 일들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대한 자기를 잃음을 깊이 배웠다.



황 집사님은 나와 함께 하기 전 벌써 이미 서약하셨던 대로 태국 치앙마이에서 일 년마다 삼 개월 씩 7년을 헌신하셨다. 소변 주머니를 차고 3층짜리 국제학교를 완성하셨다고 한다. 집사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까닭은 당연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처음부터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 것 같다. 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춘천의 술집 마담들이 전부 조문을 왔다 하니 그의 예전의 삶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단 한 번도 월급을 아내에게 가져다준 적이 없었다는 말도 들었다.

그런 그를 주님께 인도한 사람은 바로 그의 아내였다. 30년을 혹독하게 기다렸더니 그 인내를 존경한다. 집사님이 전립선암으로 수술실에 들어갈 때 아내에게 전한 ‘하나님을 만나고 오겠다’던 그의 말은 사실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즉시 만나주신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다. 그 시작이 태국 치앙마이였고, 그가 태국 일을 마칠 즈음 하나님은 필리핀 팔락(Tarlac, 앙헬레스)를 중심으로 한 아이라 원주민을 위한 사역으로 옮기셨다. 여기서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일 년의 삼 개월을 섬겼다.



필리핀에서(왼쪽부터. 이기원, 박철환 선교사, 황석호 집사)

선교지에서 암을 얻어 춘천의 어느 곳에서 휴양을 갖던 선교사님이 우리를 중국으로 초청했다. 원 없이 일했던 곳이다. 아파트 두 개 층(두 채가 아니라)을 농인韓人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에 맞게 다

시 배치하는 일이었다. 그는 주무가 되고 나와 농인들은 보조였다. 다하지 못하고 나왔지만, 보조였던 농인에게 인계하고 그들이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주무로서 집사님이 온화한 태도로 함께 하며 일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이 삼각관계—우리와 농인, 선교사님—를 잊지 못한다. 큰 행복이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고, 낮아짐, 경청, 성실은 일하는 두 주를 순직하게 하였다. 그 선교사님은 그다음 해에 돌아가셨다. 그곳이 안녕한지 집사님과 나는 가끔 묻곤했다. 아이따 원주민을 위한 사역은 일 년 삼 개월뿐 아니라 수시로 이루어졌다. 가깝기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엔 설명이 부족하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에, 선교사님과 친했기에, 그리고 아이따 원주민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면 모를까.

나 혼자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던 적이 있었다. 같이 안 갔다고 많이 나무라셨다. 그의 열정에 놀라 좀 먼 곳이지만 러시아 모스크바와 불가리아 롬을 함께 했다. 러시아에서는 화재로 전소된 건물을, 불가리아에서는 집시를 위한 예배당을 지었다. 불가리아의 예배당은 서울의 어느 자매님의 은혜로 짓게 되었다.

이 예배당을 지을 때, 한 8년을 동역자로 함께 하며 늘 온화했던 분이 처음으로 나에게 불같이 화를 낸 적이 있었다. 나를 생각하는 염려 탓이었다. 이전에 태국에서 불편한 몸—뇌암으로—으로 일하던 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을 보았기에 나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다.

러시아에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보고 아내에게 보여줘야겠다며 툭 던진 말을 통해 아내에게 빚진 마음을 넘어선 사랑을 읽을 수 있었다. 그분이 내 곁을 떠났다. 아니 우리 곁을 떠났다. 죽은 자를 밖의 사람들처럼 기억해서는 안 되겠지만(신14:1,2) 평강의 하나님을 보여 줄 사람, 십자가의 화평으로 행하는 사람을 보여 주고 싶었다(빌3:17-21; 4:9). 그의 자리가 행하여 못내 아쉽다. 보는 복된 눈이 있어 따를 사람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황석호 집사님의 어떠함을 줄이며 남긴다.

성경의 가축 양과 염소의 의미

박익수 집사

(예담교회, 성시신문편집위원)

요즘 양고기 프렌차이즈 식당과 염소요리들이 인기이다. 소고기보다 비싸다. 그 이유는 영양탕 대체육이기도하고 면역에 좋다고 한다. 염소젖인 산양유가 모유에 가깝고 항노화 성분을 함유하고 심장병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탈무드에 소개된 장수식품이기도 하다. 고급 카페트나 명품 신사복 모직류도 양털을 소재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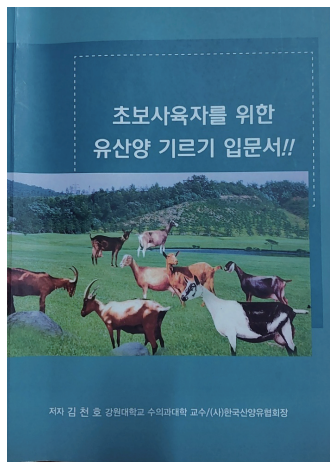
우리나라 축산 분류에 따르면 산양(염소)의 종류는 털을 생산하는 면양, 젖을 얻는 유산양, 육용종 비육 염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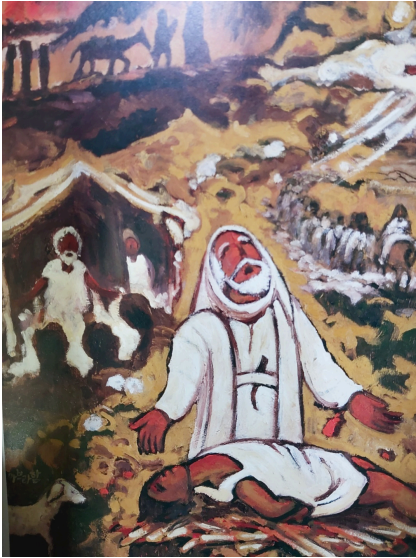
면양은 넓은 평지가 있는 들판을 좋아하고 염소들은 험준한 산지를 좋아한다. 창세기 4장 2절, 가인의 동생 아벨은 양치기였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반기셨다.

히브리어로 ‘촌’ NIV 번역은 flocks 정확히 면양인지 젖 짜는 염소인지는 모르나 양떼로 번역되었다. 제우너 저서를 통해서 중동지역에서는 발굽이 갈라진 반추동물은 정결한 고기에 해당되어 히브리인들의 식사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염소는 험준한 산지 태생으로 습지나 고원 지대 및 사막의 오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퍼지게 되었는데 그런 만큼 많은 품종이 생겼다. 평야에 양질의 풀(목초)을 먹은 면양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염소를 앞질렀다. 면모직으로 귀하게 되면서 값비싼 무역의 대상이 되었다(대상4:39).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으로 새끼양 십만의 털과 수양 십만이 털을 바쳤다(왕하3:4).

정결함의 상징으로도 이사야 선지자는 면양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사1:18)’,

여호와이레(창22:13-14절 :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의 선물)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속에서 벌어진 일이다. 덩불에 뿔이 걸린 숫양(ram) 한 마리가 보였다. 아브라함은 그 양(ram)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 라는 말은 거기서 생겨난 것이다.(더 메시지 성경)





출애굽기 12장 이집트 종살이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이집트에 내려진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않고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태어난 것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한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우상신들을 심판한다.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lamb)의 피를 바른 문설주 표적을 보고서 너희를 넘어가겠다.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칠 때 어떤 재앙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신약성경(눅22:7) 유월절 어린양(lamb)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마태복음 26장에서 유월절(the passover) 어린양으로 죄를 용서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붓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sheepskins)과 염소(goatskins)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히11:37)...

양이나 염소 모두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풀을 먹고 반추하며 산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에게 양이나 염소 가축은 의식주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으며 죄 많은 세상을 살 때 늘 반추(회개)하며 욕이 자기의 양털을 가난한 이웃에게 주어서 따뜻함을 나눔처럼(욥31:20), 하나님이 손수 지은 가죽옷을 아담부부에게 입히셨던 것처럼(창3:21), 1952년 6.25전쟁 때 미국의 선한 농부들이 잿더미가 된 한국 농부들에게 3천 2백 마리 구호 가축들을(그 중 젖염소 222마리)노아의 방주 작정명으로 전달하고 사육법도 가르쳐주었다. 춘천 강원대학교 수의과 은퇴한 김천호교수도 평생 유산양 가축 연구와 유산양 협회를 통하여 선양사업을 하고 있다.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흘림 은혜로 구원받은 크리스찬인 필자도 고난도 함께하는 나눔의 사랑의 능력이 임하길 소망하고, 양과 염소 가축을 통한 희생의 십자가 진리가 깨달아 졌음을 바란다.



성시화와 유학생 사역

박상배 선교사
(GP 선교회, GMS)

한국에 급속하게 증가하는 디아스포라 유학생



디아스포라 이주민은 2024년 7월 31일 기준 260만 명(2,616,007명)을 넘어서 대한민국은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 디아스포라(이주민)는 이주근로자, 다문화 가정, 유학생, 난민 등으로 분류한다. 이주민 선교 실행위원회에 따르면, 유학생 수는 이미 2024년 15만 명을 넘어섰고, 2027년까지 30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춘천에 있는 K대학이나 H대학이 글로벌 대학으로 선정된 것도 유학생 유치 계획과 무관하지 않다.(K대학은 내년부터 연간 1천800명을 유치, 2028년까지 외국인 학생 5천 명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조약돌 유학생 모임 태동과 현재

조약돌은 강원대 국제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셨던 고 박의범 교수(2021년 소천)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레19:33-34)는 말씀에 따라 시작하였다. 중국, 몽골 등에서 온 학생들을 따뜻하게 돌보아 주셨는데 몇몇 유학생들은 지금도 박 교수님의 부형 같은 사랑의 삶을 회고하며 눈시울을 적시곤 한다. 아가페적 사랑의 섬김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된 것이다. 조약돌은 고 박 교수님의 아호(小石)이다.

박상배, 이현숙 선교사(GP선교회, GMS)는 선교의 시대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전략적인 디아스포라 사역을 위해 한국 필드로 들어왔다. 1991년부터 시작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현지 사역을 이양하고 지금은 K대학을 중심으로 해외유학생들을 섬기고 있다. 조약돌은 “우리는 환대 공동체로서 유학생들을 복음화하여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세운다”는 사명선언문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여러 교회와 동역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있다.

소그룹 성경공부, 한국어 클래스(매주 3회), 카페 그룹모임(매주 4회), 문화 체험, 정착 생활 안

내, 등산 등 야외 활동, 교회 탐방, 가정으로 초대, 목요 경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섬기면서 동역자들은 국내에서 실제적인 타문화권 선교 현장을 체험하게 되고, 유학생들도 타문화권 자체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게 된다. 학위 취득을 위한 생존이 아니라 타문화권 자체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이 복음으로 거듭날 때 열방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드리게 된다.

조약들은 A국 유학생회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부분의 학생은 석, 박사 과정에 있으며, 학위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2023년 첫 학기에 8개국 16명으로 시작된 조약돌 프로그램에 2024년에는 약 5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12월 3일 종강 및 크리스마스 벅킷에는 45명이 참석하여 성탄의 의미를 알리고 생명이신 예수그리스도를 선포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전·현직 교사 다섯 분이 한국어 교사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고, 카페모임은 네 명의 한국 청년 리더와 세 명의 A국 도우미가 협업으로 이끌며, 정체성과 가치를 주제로 다양한 대화를 시도하며 복음 브릿지를 이어가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갖고 있다. 또한 동역자들은 매주 목요일 아침 경건회를 갖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다.

조약돌 3개국 기독교 교수들의 협력

조*문 교수(A국)가 박사학위 받는 날, 오전에 세례를 받고 칭○○대학으로 들어갔다. 조 박사의 유학 생활 동안 어느 장로님이 부형의 마음으로 돌봐 준 사랑의 씨앗이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낸 것이다. 로○○ 교수(인도네시아)는 강원대 국제무역학 박사학위(2025.2)를 받을 예정이고, 밧○ 교수(인도네시아)는 충남대에서 물리학박사 학위를 받아 한림대에서 연구원으로 일한 후 중부자바의 대학으로 귀임한다. 한림대 물리학과 이○○ 교수를 중심으로 3개국 기독교 교수들이 전문영역을 통한 공동프로젝트 등 귀한 동역을 시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각국 대학에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성시화는 디아스포라 선교로 완성된다.

한국은 이미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진입했다. 춘천이 K대학도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국인 전용 학과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에 나섰다. 선교적 관점으로 이러한 변화를 의미있고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한다. 춘천 도성에 있는 유학생, 다문화 가정, 근로자들은 우리에게 주신 땅끝이다. 선교지 영혼들이 우리 일상 앞에 다가와 있다. 선교의 마지막 퍼즐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다. 성시화는 디아스포라 선교로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외국인 정보 빅데이터 팀이 2024년 8월 20일 작성. <https://www.moj.go.kr/subview참조>.〉

귀신을 부리는 유럽의 문화예술계

이관형 권사

(한길교회/ 성시신문편집장)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접하고...



2012년에 개봉한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는 베네치아 국제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여 우리나라 영화로는 처음으로 3대 국제 영화제(베네치아, 칸, 베를린)에서 최고의 상을 수상했다. 그래서일까? 김기덕 감독의 영화는 평상시 국내에서 개봉을 해도 관객 숫자가 거의 독립 영화 수준이었는데 영화 '피에타'의 수상 소식을 들은 후 필자인 나도 관람, 무려 60만 명이 넘게 관람했다. 하지만 지금도 그 영화를 회상하면 한마디로 속이 역겹다 못해 토가 나올 정도였다. 내용인즉 엄마라는 자가 아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이후 아들은 트럭에 자기 몸에 쇠고리를 걸어 새벽길 도로에 피를 뿌리며 죽어간다는 혐오스러운 내용이었다. 형부와 처제 간의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칼로 사람 목을 자른다는 내용의 소설 채식주의자와 유사한 점이 많

다. 하지만 다행히 영화 '피에타'는 청소년 관람 불가였지만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노벨문학상 수상작이란 이유로 성인도 아닌 학생들의 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 도서관에 권장도서로 비치한다고 하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서양화 작가이기도 한 필자는 10여 년 전 미술 선교와 관련해서 유럽 순회 중 다른 나라보다 영국에 며칠 더 머문 적이 있었다. 성도라면 영국의 복음 상황을 다들 알겠지만 한마디로 최악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품고 있는 대부분 교회의 출석 교인은 전부 은발 머리에, 20명 미만이며, 아예 교회가 식당이나 술집 심지어 이슬람 센터 모스크로 팔려나가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안타까움 속에 문제의 원인을 생각해보면, 영국도 일본처럼 섬나라여서 귀신이 많은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

지 분명한 것은 영국의 현대미술이란 것이 일탈과 도발을 일삼는 다시 말해 ‘도대체 이런 것도 미술일까?’ 싶은 작품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하면 ‘셰익스피어의 나라’, 또는 ‘신사의 나라’라는 보수적인 이미지로만 그려지겠지만 사실 영국 런던은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지저분한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며 미술을 비롯한 예술 영역에 있어서는



현대미술의 성소인 뉴욕의 뒤를 빼짝 뒤쫓는 제2의 글로벌 시장이다. 대표적인 갤러리와 미술관을 알아보면 사치갤러리와 테이트모던 미술관이 있다.

특히, 세계 화랑의 큰손 찰스 사치의 개인 미술관인 사치갤러리를 방문하여 미디어, 전시 작품을 감상해보니, 대부분의 작품들은 마치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를 보는 것처럼, 한강 소설의 ‘채식주의자’를 읽은 것처럼 맘 놓고 드러낼 수 없는 인간의 광적이고 혐오스러운 감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파격적이고 선정적인 작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예를 들면 생존하는 작가 중 가장 작품값이 비싸다고 하는 죽음의 공포 작가 데미언 허스트의 대표작품은 대부분 포름알데히드 용액이 담긴 커다란 수조 안에 반 토막 낸 동물을 전시, 앞면과 뒷면이 선명하게 다른 잔인하게 학대당한 작품이었고, 자기 피를 뽑아서 냉동시킨 후 자화상을 조각하는 마크 퀸이나 여자 어린이의 형상에 성기 모양의 포르노 이미지로 형상화시킨 킨제이크와 디노 스채프먼 형제 등 세계 화랑의 큰손 사치의 취향에 맞춰 작품을 하는, 이른바 Pet Artists(애완용 아티스트)들의 터럽고 역겨운 악몽 같은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한마디로 이들 작가들은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악마와도 같은 찰스 사치에게 영혼을 팔아먹는 사탄의 앞잡이들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해서 (뇌를 우동 사리로 만들어)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가 동시적 현상을 경험하는 시대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가 우리나라 미술계뿐만 아니라 문학계에도 널리 퍼져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서울시장이던 고 박원순 시장은 다수 서울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단체들이 퀴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서울 시청광장을 내어주어 온갖 음란

물과 행위가 난무했으며 또 그들 앞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의 동성애 결혼 합법 국가로 만들겠다는 연설까지 했다. 그리고 난 후 퀴어 축제는 전국 각지에서 성행하였으며 안타깝게도 춘천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춘천시장은 교회 집사란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퀴어 축제 개최를 허락했고 지난해 가을에도 제4회 퀴어 축제를 낙원문화공원에서 개최했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EBS 교육 방송의 ‘위대한 수업’에서는 미국의 철학자이자, 젠더 이론가, 레즈비언인 주니스 버틀러를 초대해서 방송까지 했다. 그는 소아성애와 근친상간 합법화를 주장하며 다음 세대인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작은 교회인 가정을 파괴하는데 앞장서는 대표적인 젠더 이론가이다. 아울러 동성애를 옹호하는 일부 목회자들과 시민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모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 분열하여 흩어지기를 원하는 사단(마귀)의 앞잡이며 아울러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거나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목회자 혹은 성도들 때문에 더 이상 의로운 자들이 고통과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성시화 운동의 시초인 춘천은 앞으로 신천지, 여호와의증인, 만민교 등의 이단과 더불어 음란한 성문화와 편향된 정치사상을 가진 동성애, 퀴어 행사가 춘천에서 지속적으로 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는 교회, 애통하는 성도들이 협력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싸워야지만 춘천을, 우리나라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1:15)





김치 없이는 나는 못살아

이관형

(맛집기행가/ 자연유치원장)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까~’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른 가수 정광태가 1985년에 발표한 ‘김치 주제가’ 곡의 한 소절이다. 김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유의 음식이며 김장 문화는 2013년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김치 사랑은 대단하다.(오죽했으면 집집마다 김치냉장고가 다 있을까 싶다)

김치 종류를 대략 살펴보면 김장김치, 갓김치, 봄동김치, 총각김치, 파김치, 깍두기, 물김치, 나박김치, 열무김치, 양배추김치, 오이김치, 양파김치, 노각김치, 깻잎김치, 심지어 고구마 줄기와 참외와 수박으로 담은 김치도 있으니 김치 주재료의 종류는 끝이 없다. 한편 북한은 고춧가루도 아주 귀해서 대부분 백김치밖에 없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산 김치의 특징은 겉보기엔 익은 듯하나 맛을 보면 전혀 익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중국음식점 김치는 당연히 중국산일 것이다)

이외에 김칫국물이 담긴 음료도 있으니 김치 이야기를 꺼내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소설책 한 권은 너끈히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추억거리가 있을 것이다.

필자도 뒤돌아보니 국민학교 시절.....

어느 김장철이 다가오자, 종갓집 만며느리인 어머니께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그 동안 도대체 김장을 얼마나 많이 담궜으면) ‘며느라! 올해는 김장을 많이 하지 말고 500포기만 하자구나’ 하고 애길 하셨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넓은 마당엔 절인 배추가 담긴 드럼통으로 가득 찼고, 그 드럼통 사이로 숨바꼭질을 하던 생각이 아련히 떠오른다.(지금 팔순 중순인 어머니는 며느리들을 집합시켜 김장 담근 적이 한 번도 없을뿐더러 그냥 집 근처 마트에서 회사별로 조금씩 사다 드신다)

군 입대 훈련소 시절.....

마침 김장철이라 서로 다투며 먹었던 김치 젓갈이 나중에 알고 보니(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취사병 말로는 소금에 절인 산더미 같은 배추에 겨울잠을 안 잔 개구리들이 떼거리로 눌러 와서 삭히게 된 것이란 얘길 듣고 얼마나 웃었던지(다행히 나는 먹질 않았다).

해외여행.....

30년 전만 해도 동남아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고급 호텔 뷔페 상차림에 김치는 냄새나는 마늘과 생강이 들어있어 나 홀로 외딴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의외로 편식이 심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추장과 함께 김치를 병에 꽂꽂 싸매어 간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가져간 김치가 동이 나면 여행은 뒷전이고 교포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기어코 찾아가 흰쌀밥 위에 김치를 얹어서 먹었다.(필자도 한 때 해외여행 중 김치를 좀 달라는 말은 못하고 옆 테이블 식탁에 놓인 김치를 쳐다보며 밥 한술을 떠먹는 자린고비 신세가 된 적이 있었다) 이후 일본 동경에선 마늘 대신 와사비가 들어간 김치를 먹었고 영국 웨일즈에서는 어른 손바닥 크기의 민들레 잎으로 담은 싹싹름한 민들레잎 김치를 먹기도 했다.

필자인 나는 형편상 외식을 자주 하는데, 김치가 맛있는 식당은 대부분 테이블 수가 많은 잘되는 식당으로 김치 등의 반찬도 셀프라 마음껏 여러 번 갖다 먹는다. 배추와 무 값이 조금 비싸졌다고 해서 양파김치 혹은 양배추김치가 나오는 날이면 조금 서운한 게 사실이다.

오늘 김치에 대한 글을 쓰다 보니 춘천 부안막국수의 맛깔스런 보쌈김치와 보리밥에 고추장을 넣어 야무지게 비벼 먹었던 이모네 칼국수의 무채, 그리고 금선식당의 순댓국과 함께 나오는 아삭한 깍두기, 국수를 말아 먹고 싶은 오거리 곱창집의 신건지(동치미)가 무척이나 땡긴다.

2025년! 성도라 불리는 우리는 김치 없이는 (목사님 없이는, 장로님 없이는 등 누구 없이는) 못살아가 아닌 복음성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처럼 예수님 없이는 단 한 순간도 못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테스터먼트-모세 이야기

김춘배 화백
(성시신문 편집위원)



모세의 출애굽 사건은 초신자 시절 처음 접했을 때 그 중요성과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세실 B. 드밀의 <십계>를 통해 그 엄청난 사건과 장면, 서사를 접하며 출애굽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깨달았다. 그 영화가 지닌 강렬한 힘은 명배우 찰턴 헤스톤의 연기를 통해 <벤허>와 함께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작품은 지난 세대의 많은 사람들 기억 속에 생생한 감동의 순간으로 남아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것이다.

기술과 자본이 발전했음에도 영적 감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대 문명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 안타깝다. 10년 전 ‘<십계>와 <엑소더스>’라는 제목으로 기대가 무참히 깨진 경험을 독자와 공유했으며, 작년에는 ‘기독교 영화의 선별과 구별’이라는 주제로 현대 기독교 영화의 한계와 희망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통해 성경의 깊은 영적 감동을 전하는 은혜는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OTT 플랫폼을 통해 기독교 영화를 접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위안이 된다.

드밀 감독은 1923년 136분짜리 흑백 무성영화로 제작된 <십계 The Ten Comendment>를 1956년에 231분의 어마어마한 대작으로 다시 만들어내었다.



〈십계〉 이후, 모세의 이야기는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로 제작되었으며, 필자에게 큰 실망을 안긴 〈엑소더스-신들과 왕들〉과 함께 다양한 작품으로 다뤄졌다. 또한, 〈성서의 영웅 모세 Moses, the Lawgiver〉는 VHS로 제작되어 현재 유튜브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 〈테스터먼트, 모세 이야기〉가 공개되

어 주목받고 있다. 이 작품은 독특하게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되었으며, 3부작으로 구성되었다. 할리우드 배우 대신 이스라엘인을 비롯한 다양한 개성의 배우들이 참여해 실제 역사적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모세 역의 아비 아줄레이는 이 역사적 인물에 깊이와 복잡성을 더했다. 파라오 역에는 메흐멧 쿠르툴루스, 지포라 역에는 도미니크 티퍼, 아론 역에는 이사이 골란이 출연했으며, 미리암과 비티아 역은 각각 레이몬드 암셀렘 니담과 툴레이 권알 권추가 맡았다.

잘 알려진 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어난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지혜로 나일강에 떠내려가 바로의 딸 비티아 공주에게 구조된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뜻을 가진 비티아 공주는 자식이 없던 차에 아기를 간절히 원하던 중 모세를 건져내어 키우게 된다. 모세를 담았던 작은 바구니는 ‘테바’라 불리며, 이는 노아의 방주를 의미한다.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배라는 공통점이 흥미롭다.

세심한 역사적 재구성을 통해 매혹적인 시각적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역사, 신학, 고고학 전문가들의 증언이 더해져 작품의 깊이를 더했다. 작품은 나일강 유역에서 시작해 사막의 모래 언덕을 지나 시내산으로 이어지며, 홍해의 갈라진 바다에서 절정을 이룬다. 이 여정은 가장 감동적인 신앙 이야기의 중심부로, 구원을 향한 모세의 탐구와 민족 해방의 기적을 보여 준다.

이 작품은 넷플릭스에서 2024년 3월 가장 감동적인 작품으로 선정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홍해의 기적 장면은 드밀의 〈십계〉만큼은 아니지만, 황당한 설정으로 연출한 리들리 스콧의 〈엑소더스〉보다 자연스럽고 깊은 영적 감동을 준다.

작가 김복동

구원 Salvation 20149

224×130.5cm

oil on canvas & wood

조르주 드 라 투르(Georges de la tour)의 안나의 교육



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눅2:36~38)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른 새벽 어머니의 힘찬 찬송 소리와 말씀을 읽으시던 음성이 아직도 귓전에 생생하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여선지자인 안나의 이야기는 나의 어머니를 생각나게 한다. 82세를 일기로 10여 년 전 소천하신 어머니는 평생 동안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 40세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가난과 싸워가며 자식들을 신앙으로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기도와 예배의 능력일 것이다. 어머니는 평생 동안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고 공적 예배와 가정예배의 자리를 지켰다. 그림 속의 안나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소식을 전하였다. 어렸을 적에 배운 성경 이야기는 일생의 뜻대가 되기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작가 노트 중)



담이 결렸어요

이시형 원장(이시형 한의원)

아침에 일어나 목이 뻣뻣하거나 좌우로 돌릴 때 통증이 생겨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은 흔히 “목에 담이 결려 왔습니다” 하고 호소한다.

근육의 갑작스러운 경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담이 결렸다’고 한다.

한방에서는 담(痰)을 인체에 생긴 노폐물이라고 한다. 정상적인 체내의 대사 후에 배출되지 않고 남은 찌꺼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담은 인체에 여러 곳에 머물러 다양한 증상을 일으킨다.

위에 생겼을 경우는 위벽을 자극하여 속이 미식거리거나 속쓰림이 생긴다. 또, 멀미를 잘하는 경우도 있다. 소화불량으로 검사를 했지만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도, 환자 본인은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마스크를 통해 잘 알려진 “담적(痰積)”병이 이 경우에 속하는데 환자들이 자기는 담 적병이라고 진단하고 오는 경우도 많다.

장관 쪽으로 담(노폐물)이 생겼을 경우는 이 노폐물이 흡수되지 않아 “장명(腸鳴)”이라 하여 배고플 때 나는 꼬로록 소리가 자주 나고 복통이 자주 있다.

담이 머리 쪽으로 가면 머리가 무겁거나 어지럼증이 생기고 목구멍 쪽으로 담이 가면 목구멍에 가래가 있는데 뱉어도 안 나오고 삼켜도 안 내려간다. 평소에 “음음” 소리를 잘 낸다.

담이 가슴 쪽에 머물면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생기고 소변 쪽으로 가면 소변이 시원치 않다. 팔다리 쪽으로 가면 손발이 자주 저리고 전신으로 가면 멍울이 잘 생긴다. 얼굴 쪽으로 가면 상열감이 있거나 눈 밑에 다크 써클이 생긴다. 이와 같이 체내에 생긴 담(노폐물)은 전신에 증상이 나타나고 양방 검사를 해도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위의 증상들은 한두 가지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심해지면 여러 가지의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동의보감을 보면 병의 원인이 열 개라면 그중 8개나 9개가 담이 원인이 된다고 하여 병의 발생 원인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그럼 이러한 담병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외부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과식, 과음과 잘못된 자세(자기 전에 핸드폰 보기 등), 계절적인 원인(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너무 습하거나 등)이 있을 수 있고 내부 요인으로는 선천적으로 약한 체질(위가 약하거나 폐가 약하거나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담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습관과 수면,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를 풀어 줄 수 있는 운동이나 취미생활 등이 요구된다.





책속의 책

박도준 목사(하늘뜻이룸교회, 글 익는 마을 독서모임)

(글 익는 마을 : 예수교장로연합회 통합 소속 춘천지역 목회자 5명이 매달 1권씩 선정된 책을 읽고 발제하고 나누는 모임입니다)

민경구의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 / 민경구 지음 / IVP

민경구의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는 흔히 율법을 억압적인 규범으로 여기는 통념을 깨고, 오히려 고대 근동 사회 속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구약 율법을 꼼꼼히 분석하며, 그 안에 담긴 약자 보호, 공정한 재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현대적 인권 개념과 맞닿아 있는 가치들을 드러냅니다.

이 책은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성경이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신선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특히, 노예, 여성,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율법 조항들을 분석하며, 고대 이스라엘 사회가 지향했던 정의와 공평의 가치를 조명합니다.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는 성경을 통해 인권의 근원을 탐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싶은 성도님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거라 확신합니다



전지적 셀장 시점 / 주현재 지음 / 글과길

이 책은 소그룹 리더인 셀장의 역할과 책임을 현실적이고 유쾌하게 그려낸 책입니다. 저자는 셀장으로서 겪는 다양한 상황과 고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독자들이 셀장의 리더십과 셀 사역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단순히 셀 운영 매뉴얼이나 이론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셀 사역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기쁨, 갈등과 화해, 성장과 좌절 등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셀원들을 향한 셀장의 헌신과 사랑, 섬김과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참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특히, '전지적 셀장 시점'이라는 제목처럼 셀장의 시각에서 셀 사역을 바라보면, 셀원들의 다양한 유형과 특징, 셀 모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유머러스하면서도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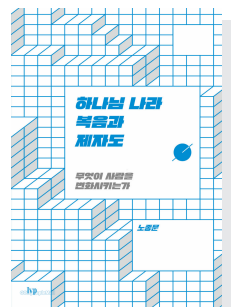
이 책은 셀장이나 소그룹 리더를 맡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셀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한 책입니다. 셀 사역의 가치를 되새기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과 제자도 / 노종문 지음 / IVP

노종문 목사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과 제자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안에서 조망하는 책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기독교의 핵심 주제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춰 선명하게 설명해줍니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은 복음, 십자가, 부활, 제자도 등을 단순한 교리로만 제시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연결하여 실천적인 제자의 삶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미래의 이상이 아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어야 할 현실임을 강조하며, 독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아름다움과 제자도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는 탁월한 책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춘천시화운동을 위해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인

가천홍 강은주 경동현 고순덕 고순화 고정희 박복연 박해옥 박 환 국주영 권경애 권양희 권여림 권영자 권용인 권혁자 권현재
 권현정 김경순 김경애 김경희 김관수 김교성 김금교 김금란 김기영 김기자 김다정 김도희 김두철 김매순 김명선 김명희 김문수
 김미라 김미숙 김미향 김민석 김보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옥 김상화 김생수 김설아 김성국 김성희 김세환 김수연 김수일 김숙희
 김순덕 김순옥 김순철 김순희 김영관 김영명 김영수 김영순 김영일 김영태 김영희 김예은 김옥분 김옥선 김용배 김용선 김용기
 김원중 김은아 김은희 김점자 김정미 김정숙 김정애 김정의 김정희 김중복 김중숙 김중옥 김종익 김중찬 김중희 김주봉 김주혁
 김주형 김지영 김춘화 김태균 김학자 김향자 김현주 김현철 김형욱 김혜란 김화분 나정희 남궁영숙 남궁자 남준섭 남하은 노길자
 노윤미 노정희 류현구 문현숙 민경원 민병순 민병임 박갑출 박건섭 박금화 박금희 박난영 박노향 박덕남 박동호 박동환 박만규
 박명관 박문순 박미선 박미자 박미정 박상준 박상혁 박선옥 박소영 박소원 박숙영 박순덕 박순배 박애자 박영민 박영호 박옥화
 박윤철 박은경 박은혜 박인관 박정란 박정원 박종일 박주환 박지인 박지혜 박지환 박창범 박춘자 박필상 박 현 박형덕 박혜성
 박 희 박희상 방진선 배명순 배미정 배진철 배한나 배한솔 백광일 백준하 서경숙 서묘석 서성진 서순옥 서연숙 서은아 서현애
 석지찬 성숙자 성완경 성화숙 손병서 손인규 손임순 손학균 손갑수 송근영 손미화 손수정 손영인 손정심 손창근 신건호 신경자
 신금호 신달호 신동경 신미연 신성균 신안섭 신영선 신옥섭 신옥자 신은수 신종길 심규향 안순연 안한나 안현주 양봉남 양재순
 양혜경 어금옥 엄근혜 엄기중 엄기홍 엄혜련 여경구 연소흙 연정화 엄은희 엄정원 오성남 오성애 오소연 오제영 오홍금 오홍수
 용애중 용영옥 우혜진 원병열 원선미 원예슬 원유미 원화숙 원희정 유 근 유나예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영재 유용균 유재란
 유점순 유정순 유정희 유희자 윤금숙 윤기춘 윤명숙 윤서경 윤성자 윤애자 윤은미 윤은희 윤정녀 윤정희 윤학범 윤학묵 윤홍복
 이가현 이광재 이광필 이규현 이기환 이동현 이명숙 이명순 이무식 이문희 이미숙 이미희 이명일 이병필 이병철 이봉연 이선임
 이상도 이성숙 이소영 이숙희 이순자 이승희 이연숙 이연화 이연희 이영규 이영순 이영윤 이영준 이영진 이옥순 이완래 이용숙
 이원일 이윤규 이윤주 이은경 이인숙 이재곤 이재선 이정미 이정옥 이종완 이종현 이주영 이지영 이지는 이진주 이창주 이천희
 이춘선 이충훈 이태우 이하경 이한수 이현석 이현아 이혜란 이혜옥 이호민 이희화 임덕수 임미화 임소희 임순희 임쌍용 임윤희
 임인숙 임재철 임청용 장경수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준용 장지원 장진순 장창순 전수진 전운배 전정희 정계지 정국환 정규시
 정금옥 정명옥 정복례 정복희 정선문 정성옥 정우진 정유빈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선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승 정주향
 정지혜 정진호 정치웅 정현우 조경대 조경자 조남진 조도산 조상균 조성경 조소현 조양숙 조영순 조영자 조원순 조은비 조정섭
 조정일 조종현 조진경 조현옥 주명호 주신자 지영필 지운용 지운성 지정훈 차유진 차재욱 채재관 천향호 최광우 최귀숙 최문식
 최동규 최명기 최문수 최미정 최미혜 최민기 최민희 최선이 최선혜 최선희 최성현 최순희 최승경 최승태 최승화 최연화 최영순
 최영희 최예샘 최옥순 최윤영 최은숙 최은순 최인숙 최재중 최정락 최중대 최종민 탁광희 피종호 하원자 하윤옥 한은희 한명수
 한성우 한순득 한원순 한정순 한정연 한희선 한희현 한서현 허순영 허 엽 허인영 허정자 현연희 현재용 홍기수 홍순복 홍영숙
 홍은숙 홍의표 홍인숙 홍춘애 홍택기 홍혜림 황금심 황기현 황병찬 황은주 황정숙 황태음 황변구

후원교회

갈릴리감리교회 산천무지개교회 신성감리교회 주의숲교회 춘천새누리교회 하늘기쁨교회
 강변제일성결교회 새춘천성결교회 아미교회 주찬양교회 춘천온누리교회 하늘평안교회
 강원침례교회 석사감리교회 암스트롱병원교회 주향교회 춘천우리교회 한빛교회
 거성침례교회 소양감리교회 엠마오교회 초대교회 춘천은평교회 한울섬김교회
 그말씀양문교회 소양성결교회 여의도순복음춘천교회 축복교회 춘천은혜장로교회 화목교회
 나눔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예담장로교회 춘천광명장로교회 춘천일신교회 효신장로교회
 더좋은순복음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예사랑교회 춘천광영교회 춘천장로교회 효자감리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예수촌교회 춘천광장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후평제일교회
 밝은빛장로교회 순복음조은교회 옥산포침례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중앙성결교회
 사랑의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우두감리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침례교회
 사암성결교회 섬이있는교회 임마누엘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평화교회
 산솔교회 신복교회 제자감리교회 춘천성광교회 평성성결교회

후원기관 및 사업체

JDM 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매일관광 베드로선교센터 아가갤러리 영광한의원 월드비전 춘천와이신협 행복재가요양기관
 ▶ 명단(단체)이 누락이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T.(033)256-1260 H.010-9698-2993 / 후원계좌번호: 신한 131-005-937566(춘천시화운동본부)

창간 1998년 9월 15일 등록번호 춘천.바00012 발행인 이수형, 김훈 편집장 최상도, 이관형, 김훈

편집위원 이연희, 이영규, 김춘배, 정숙현, 김진술, 박익수 편집·발행 춘천시화운동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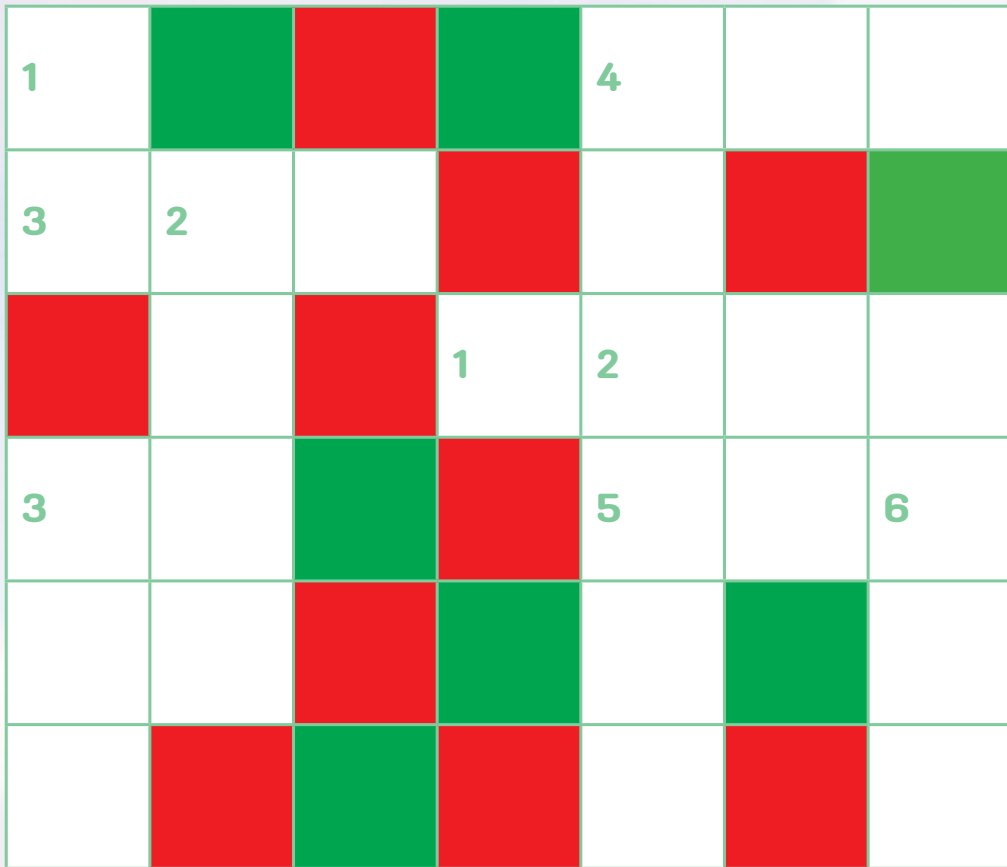
주소 강원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1019 문의 (033) 256-1260 팩스 (033) 257-1260 메일 holycc1972@daum.net

성시 12월/성경퍼즐퀴즈 : 가족들과 함께 맞춰보세요

참여방법

2월 10일까지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당첨자 5명에게 소정의 상품(상품권 1매)을 보내드립니다
문자. (010-9698-2993)

지난 호 정답자 장○○, 주○○, 오○○



* 가로 힌트 *

1.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은?(마1장)
2. 연중에 밭에서 추수하여 거두는 절기는?(출23장)
3. 가나안땅을 기업으로 주신후 어느선지자 때까지 사사를 주셨나?(행13장)
4.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5. 히스기야의 부친의이름은?(대하28장)
6. 다윗왕때 제사장이었던 아히둡의 아들은?(삼하8장)

* 세로 힌트 *

1. 마리아에게 무서워 말라고 누가말했나?(눅1장)
2. 입다의 딸을 일컫는 말은?(삿11장)
3.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선지자는?(눅11장)
4. 길보아산에서 죽은 사울의 세째 아들은?(삼상31장)
5. 모세가 손을 들므로 이긴 족속은?(출17장)
6. 레아의 여섯 번째 아들은?(창30장)

PEACE
for

HOLY CITY
CHUN CHON
2025

平和の 새해를 위하여 ^^